

# 순창군, 전통발효식품 기술 보급 나선다

장류·발효식초 제조기업 20곳  
중군 보급·기술 지원 협약 맺어  
개발 제품 판매액 40억원 육박

### ■ 전통발효식품 기술지원 현황



순창군이 보유한 중군과 발효기술이 전국 식품관련 기업에 보급되면서 순창의 이름을 높이는 데 한몫하고 있다.

4일 재단법인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에 따르면 '2020년 중군 활용 발효식품 산업 지원사업'으로 기술보급 지원기업에 선정된 전통 발효식품 제조기업 15곳과 지난 1월 협약을 맺고 중군 보급과 기술을 지원하고 있다.

최근 5개 업체가 추가 선정됨에 따라 조만간 협약을 맺고 기술지원에 나선다. 진흥원은 2017년 6곳을 시작으로 2018



순창군이 자체 보유한 중군발효기술을 전통발효식품 제조기업에 보급하고 있다.

〈순창군 제공〉

년 10곳, 지난해 9곳의 식품 제조기업을 지원했다.

올해 맞춤형 중군 공급과 기술지원을 받는 제조기업은 장류 제조기업이 16곳, 발효 식초 제조기업 4곳 등 총 20곳이다.

선정된 기업체는 중군 보급기관인 진흥원 측과 중군 보급 및 기술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중군선정 및 발효 적성평가, 시제품 제조 단계를 거쳐 상품화를 추진하게 된다.

특히 현재까지 진행된 중군 및 기술지원에 따른 관련 기업체들의 성과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기업체 조사 결과 총매출이 기술지원 전후로 약 5% 성장(250억원 규모)했으며, 중군 보급과 현장 중군 적용을 통해 개발한 제품의 직접 매출액도 40억원에 이르며 전년 대비 22.6%의 증가율을 보였다.

또 참여 기업의 신규 고용도 2018년에

는 8명, 지난해에는 18명으로 증가했다.

조성호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팀장은 "전국 약 6000여 발효 식품 제조기업에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순창 중군을 공급하기 위해 발효미생물산업화지원센터를 건립 중"이라며 "올해 하반기에 완공하고 정상 운영을 통해 발효식품 산업의 기반인 제조기업의 성장을 견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순창=장양근 기자 jyj@kwangju.co.kr

# 군산시, 일감창출형 대체부품산업 생태계 구축

2021년까지 총 사업비 150억원 투입 자동차산업 다각화

군산시는 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일감창출형 대체부품산업 생태계 구축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자동차 부품기업이 보유한 기술과 인프라를 대체 부품산업으로 전환해 산업의 다각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

됐다.

올해부터 2021년까지 2년간 총 사업비 150억원을 투입해 공동활용 장비와 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 등 장비 5종을 구축하고, 기업체의 시금형(제품) 개발을 지원한다.

군산시는 자동차 부품기업의 기술개발과 제품의 다변화를 통한 국내의 시장 확대 등으로 사업의 다각화 기회를 마련하고, 그에 따른 고용유지 등 인력 창출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체부품 인증제도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2015년 도입한 것으로, 군산지역 중소기업인 창원금속공업(주)은 지난해 1월과 6

월 국산차로는 최초로 현대 싼타페TM 모델 전방 좌·우 핸더(국산차 외장부품 인증품 1·2호)와 현대 그랜저IG 모델의 전방 좌·우 핸더(국산차 외장부품 인증품 3·4호)를 개발해 국산차 인증부품 제품인증을 받았다.

채행석 군산시 산업혁신과장은 "사출성형기 구축과 20여개 기업의 인증품 기술개발을 지원한다"며 "군산이 국산 자동차 대체인증품 선두주자로 자리매김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

# 고창군, 지역화폐 '높을고창카드' 출시

연말정산 30% 소득공제...지역경제 살리기 주력

고창군이 지역화폐인 '높을고창카드'를 지난 27일 발표했다. 지역경제 살리기에 주력하기 위해서다.

이 카드는 우체국을 제외한 지역의 은행에서 구입할 수 있다.

카드발급 이후 휴대전화에서 '고창사랑페이' 어플리케이션(앱)을 다운받아 설치하면 바로 충전과 사용내역 조회, 잔액관

리, 소득공제, 보유한다 중액 신청도 가능하다.

카드는 앱에서도 배송을 요청하면 원하는 주소지에서 카드형 상품권을 받을 수 있어 지역을 방문하는 외지인도 사용가능하다.

이 카드는 개인이 구매할 경우 5% 추가 혜택과 연말정산 시 체크카드와 동일하게

30%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소상공인은 가맹점 신청과 환전의 번거로움이 해소된다.

이 카드에 고창군농특산물통합브랜드인 '높을고창'을 새겨 지역농특산물 홍보도 병행한다.

고창군 관계자는 "편리함과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높을고창카드'가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소비자와 소상공인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고창 지역화폐 '높을고창카드'.

정책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 익산시, 미세먼지 저감 정책 펴 시민참여형 환경친화도시 추진

사업장 배출허용총량 규제 등

익산시는 미세먼지 저감 등을 통한 시민참여형 환경친화도시를 구축한다고 4일 밝혔다.

익산시는 시민참여형 환경친화도시 구축을 위해 외부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한다. 시민참여와 소통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발굴하는 한편 시민원탁회의 추진, 미세먼지 파수꾼 교육, 미세먼지 환경교육 등을 실시한다.

또 대기관리관역으로 오는 4월 3일 지정됨에 따라 사업장별 배출허용총량을 규제해 미세먼지 감축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하반기 준공되는 모현동 전북권대기환경연구소를 통해 미세먼지 유입경로와 특

성분석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수립한다.

이 밖에도 농촌 불법소각 방지를 위한 합동점검반 운영, ICT기반 축산환경관리 시스템 구축,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지원, 도로재비산먼지 집중관리도로 지정운영, 특정경유차 관리강화 등 다각적인 시책도 추진된다.

익산시 관계자는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지속적으로 신규시책을 발굴해 환경친화도시 조성에 앞장서겠다"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차량 2부제 참여, 논밭두렁 불법소각 금지, 시민참여 나무심기 등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kwangju.co.kr



# GS칼텍스, 코로나19 극복 동참 여수사랑상품권 1억5000만원 구매

GS칼텍스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슬기롭게 극복하자며 1억 5000만 원 상당의 '여수사랑상품권'을 구매했다.

4일 여수시에 따르면 권오봉 여수시장과 김형국 GS칼텍스 사장(왼쪽)은 지난 3일 1억 5000만 원 상당의 '여수사랑상품권 구매증서 전달식'을 했다. (사진)

GS칼텍스는 여수시로부터 구입한 상품권을 여수산단 MFC 프로젝트에 참여 중인 GS칼텍스와 GS건설, 협력업체 근무자 등 약 5000여 명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GS칼텍스는 지난 2018년 10월 11일부터 지금까지 연인원 50만 명의 작업자가 참여한 MFC 프로젝트에서 단 한 건의 작업 손실과 상해 등 사고없는 '무재해 400만 시간'을 달성했다.

김형국 GS칼텍스 사장(MFC 프로젝트

추진단장)은 "어려운 여건에도 MFC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안전을 최우선해 '무재해 400만 시간 달성'이라는 성과를 거뒀다"며 "코로나 극복과 프로젝트 참가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자 여수사랑상품권 구매에 전달한다"고 말했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GS칼텍스의 여수사랑상품권 구매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에 큰 활력이 될 수 있는 대표적인 행사"라며 "앞으로도 시와 여수산단, 지역사회 모두 힘을 합쳐 코로나19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국가산단 내 유일한 정유사인 GS칼텍스는 단일 공장 최대 인원(2500여 명)이 근무 중인 지역 대표기업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2조7500억원을 투입해 신규 올레핀 생산시설인 MFC 공장을 신설하고 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

손해보험협회

고의사고! 허위입원! 허위청구! 과잉진료! 확대수리

## 한 사람의 보험범죄 전국민의 경제부담

2016년 9월 30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

날로 지능화되는 보험사기에 늘어나는 국민손실, 보험사기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보험사기, 반드시 적발됩니다.

MERITZ 메리츠화재 | 한화손해보험 | 롯데손해보험 | MG손해보험 | Heungkuk | 삼성화재 | 현대해상 | KB손해보험 | 동부화재 | KOREAN | SGI서울보증 | AXA | AIG | NH농협손해보험